

정희석의 '소망의 싹'

서성록

서성록



필자가 정희석의 작품을 접한 것은 2년전 갤러리 이즈에서 개인전을 가질 무렵이었다. 작가는 마른 가지에서 새 순이 솟아오르는 광경을 담았는데, 한 화면에 오롯한 새싹 하나만을 확대시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게다가 새싹의 자태를 흑백농담으로 표현하여 수묵의 깊이감을 살려냈다. 중후한 먹색으로 화면을 온통 뒤덮은 ‘대범한’ 발상이 흥미로웠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작가를 만날 수 있어 좋았고, 모처럼 그윽한 수묵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림에 취한 탓일까. 전시회를 다녀와서 개인전을 본 소감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정희석의 그림에서 꽃봉오리가 보인다. 갓 돌아난 꽃봉오리는 만개한 꽃보다는 새 순에 가깝다. 세찬 바람이라도 불면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같이 연약한 모습이다. 하지만 어떻게 피어난 새 순인가. 캄캄한 어둠을 극복한 생명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귀환한 용사’다. 그런 새 순이 두 팔을 벌려 봄빛을 맞는다. 이제는 폭설도 매서운 바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빛의 온기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된다.” (국민일보, 2009.5.25)

새 순의 이미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작가는 새싹의 이미지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작품에 등장하는 새싹은 첫눈에 보기에 어떤 상징성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전시에서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필자는 작가와 자주 만났고, 일산에 있는 그의 스튜디오를 다녀오기도 했다. 때마침 다음 전시에 발표할 작품들을 준비하던 터라 미발표작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왜 그가 새싹을 그렸는지 사연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다. 새싹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돌아난 새싹’(이사야 11:1)에서 착안한 것으로,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새싹은 식물도감에 나오는 교육용 이미지가 아니라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심장한 대상이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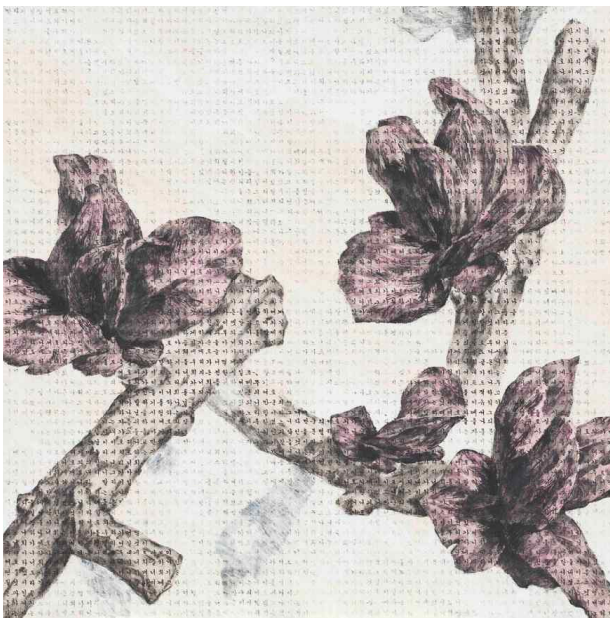
근작에서도 작가는 새싹에 눈을 맞추고 있다. 이전과 똑같은 새싹이지만 조금씩 칼라를 곁들여 화사한 분위기를 살려냈다. 희망찬 내

일을 예감하는 새 순의 의미가 더욱 농후해졌다.

최근 작품에선 정갈한 글자의 도입이 눈에 띈다. 흔히 문인화에서 글과 화제는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상례이건만, 그의 경우 글 위에 그림이 겹쳐진 파격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의미와 내용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리라.

바둑판 모양의 바탕에 또박또박 정성들여 필사한 글은 다름 아닌 성경. 구약의 소선지서, 즉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가,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랴 등의 본문을 담고 있다. (원래 띄어쓰기를 다 해야 맞는데, 이렇게 동등한 것들이 죽 연결될 때는 붙여 쓰기도 하는 거 같아요) 소선지서는 내용적으로 연약 백성에 대한 경고, 권면의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신구약 사이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선지자들이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시편을 읊긴 작품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꼬박 2년간에 걸쳐 제작했다는데, 성경 중에서도 백미라 할 수 있는 150편의 시편을 조형적으로 변안하였다. 한 피스마다(한 조각마다?) 각기 다른 꽃과 시를 넣어 완성한 이 작품을 전시장에 모두 펼쳐놓고 보면



소망의 싹-말라기1 The Shoot of Hope-Malachi1
(종이에 혼합재료, 91.5x91.5cm, 2011)



소망의 싹-미가2 The Shoot of Hope-Micah2
(종이에 혼합재료, 122x122cm, 2011)

그는 그림을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는
통로'로 삼고 있는 듯했다.

자신을 실패자라고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낭떠러지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
의 편지를 띄운다.

장관이 아닐 수 없다. 성경구절을 넣었다고 작품이 더 거룩해지거나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을 테마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도전을 안겨준다. 이는 루오의 <미제레레>
연작과 견줄 수 있는 대작이다.

그에게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장을 옮기는 걸 넘
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
런 마음이 정서체의 글씨에 아로새겨져 있다. 인쇄술의 발달로 필사
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하지만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필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애용된다. 속도에 익숙해진 현대인이 내면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마
음밭을 가꾸게 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지니지 않나 싶다. 작가도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성경본문을 적어가지 않았을까.

시편을 테마로 한 대작도 수법에 있어서는 소선지서의 작품들과 유
사하다. 글자 위에 새싹 이미지를 접목하여 문자와 이미지의 조합을
펼쳐왔다. 그의 작품에서 문자와 이미지는 사실상 '언약의 성취'라는
한 지점으로 모아진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한 내
용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받아
들이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통해 구원의 손길이 펼쳐졌다. 그런 점
에서 '언약의 성취'는 신구약을 지탱하는 핵심개념이 된다. 성경에서

그 언약이 문자로 기록되었다면, 작가는 이를 '이새의 줄기에서 돌아 난 새싹'이라는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문자와 새싹의 이미지가 한 지점으로 모아지게 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의 작품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담고 있다. 소설 지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시편 72편, 110편, 22편, 69편에도 그러한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150개나 되는 화면에 '새싹'을 그려 넣은 배경이 된다 할 수 있겠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하루 35명이 자살하여 'OECD 최대 자살국'이란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목숨이건만 한국사회에선 인명이 너무 무가치하게 다루어진다. 이런 시점에 '생명의 양식'은 더없이 절실하기만 하다. 그들을 구해줄 튼튼한 밧줄과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지 않는 생수가 필요하다.

그의 작품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는 그림을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는 통로'로 삼고 있는 듯했다. 자신을 실패자라고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낭떠러지기 앞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편지를 띄운다. 우리의 영혼에 '새싹'이 심겨지게 되면 누구나 '생명의 화관'을 쓰게 되고 '찬란한 무지개'를 보게 될 것이다. 덩불로 답답하기만 하던 길이 시원한 대로로 바뀌

는 경이를 목격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정원이 되어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 삶은 더 없이 비옥해지고 중국에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 작가들이 어둠을 밝히는 '별빛'을 발로 걷어차 버린 지 오래된 것 같다. 하지만 정희석은 아직도 이것을 마음의 좌표로 새기고 있다. 그의 예술을 반짝거리게 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림수법도 아니고 소재도 아닌, 하늘의 '별빛'이 아닌가 싶다. 남들에게는 구태의연하고 진부해 보이는 것이 작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언젠가는 그 '별빛'을 직접 만나게 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말이다.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오늘도 굳건히 예술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른다. **W**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